

2027학년도 6월 모의평가 총평 및 분석

2027학년도 6월 모의평가 by 시선국어연구소

0) 총평 및 학습 방향 제언

0-1) 총평 : 쉬운 시험이었고, 독서에서 연계 체감이 중대하진 않은 시험이었다.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 모두 작년 수능보다 쉽게 출제되었습니다. 그렇지만 6번 문제와 8번 문제는 지문의 난도가 낮기에 쉬워진 것이고, 16번 문제에서도 비례 관계나 수식 처리 등과 관련하여 힘을 빼고 출제한 것이며, 문법도 36번과 37번 그리고 39번에서 다소 힘을 빼고 출제한 것이기에, 더 어렵게 낼 여지가 있으나 학습 상태를 점검해보고자 일부러 쉽게 낸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9평에서는 이번 6평보다는 난도를 높여서 출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BS 연계는 독서는 네 지문이 모두, 문학은 현대소설과 현대시 하나, 고전시가 두 작품이 연계되었습니다. 독서에서 독서론과 과학/기술 지문은 연계 체감을 그래도 꽤 하셨을 거 같으나, 반가운 소재에 대한 친숙함 정도의 체감이었을 거 같습니다. 주제 통합 지문과 사회 지문은 소재의 난이도가 쉽고 논의의 핵심이 EBS와 맞닿아 있는 않기에 체감을 덜 하셨을 거 같습니다. 문학에서는 오랜만에 현대소설이 연계되었고 출제 대목도 EBS와 과반 이상 겹치기에 연계 체감을 톡톡히 하셨을 거 같습니다.

선택 과목 두 과목도 난이도가 쉬운 편이었으나, 화작 45번 문제의 정답률이 낮게 관찰되고 있습니다. 45번 문제의 관건은 선지에서의 세부 정보인데, 해당 유형은 결국 여전히 지문이 문제가 아니라 선지가 문제였네요.

0-2) 학습 방향 : 연계 학습에 매몰되기보다 피지컬을 올려야하고, 어려운 시험을 상정하고 공부하셔야 합니다.

연계 학습에 매몰되기보다는 국어 피지컬을 올리도록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독서는 사실 지문을 풀어보며 소재의 개념에 대한 친숙도를 올리는 정도로, 문학에서 현대시와 고전시가는 작품을 거르지 말고 주제 의식과 내용 위주로 간단하고 폭넓게 학습하셨으면 좋겠으며, 현대소설과 고전소설은 EBS 대목과 줄거리 위주로 학습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번 시험에서 13번을 틀리셨다면 법 지문을 독해할 때 법률의 요건과 범위, 효과를 중심으로 정리하며 읽는 연습을 하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14, 15, 16번 중 틀린 문제가 있다면 과학/기술 지문을 독해할 때 대상의 기능과 인과 관계, 비례 관계와 수식을 정리하며 읽는 습관을 들이시길 권합니다.

화법과 작문에서는 단번에 정답이 안 보인다면 선지를 읽을 때 몽개 읽지 않고 찬찬히 읽어보는 습관을 들이셔야 하고, 언어와 매체에서는 해당 주제의 기출 문제를 풀어보며 문장 구조와 직접 구성 요소 분석을 능숙하게 할 수 있도록 연습하시길 권합니다.

6평이 쉽다고 해서 9평과 수능도 쉬울 거라는 보장이 없으며 그럴 가능성도 낮습니다. 따라서 6평을 통해 드러난 자신의 약점을 채우고, 낮설고 어려운 지문을 독해하고 푸는 연습을 충분히 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지문 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독서

1-1) 주제통합

(가) : 노비에 대한 양반들의 인식 변화 & (나) : 민권에 관한 주장과 형평 운동

- 패러프레이징과 대상의 목적

EBS 연계 지문입니다. 다만 (나) 지문의 후반, 형평 운동 관련만 연계되었을뿐더러 2511 (가), (나) 지문과 비슷한 느낌으로 한국사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매우 편하게 읽을 수 있게 출제되었습니다. (한국사 공부도 등한시하지 맙시다!)

전반적으로 문제는 정의된 개념만 묻고 있습니다.

6번 같은 경우에는 유길준의 '민'에 대한 권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넘어갔다면 정답을 고르는데 힘들었을 수도 있으며, 선지에서 패러프레이징 된 부분을 지문에서 정확히 매칭시키는 게 관건이었습니다. (차별적 시선 → 민은 무지한 존재)

주제통합 지문의 주장에 대한 비판 문제에 약하시다면 2609, 2509의 주제통합 지문을 한 번 풀어보시길 권합니다.

또한 8번 문제의 2번 선지는 주장과 그 목적을 생각해보는 것을 묻고 있으며, 5번 선지는 행위의 목적을 구분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연계가 직접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은 없었다고 생각해서 연계 학습을 등한시하면 안됩니다. 다만, 매몰되지 말고 본인의 피지컬을 올리는 것이 고득점을 받기에 더 적합한 공부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2) 사회 : 정보 비대칭에 관한 법적 논쟁

- 법률은 요건과 효과를 중심으로

마찬가지로 '정보 비대칭'이라는 큰 주제만 연계되었으며, 문단들의 화제와 소주제는 EBS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지문의 논의들이 추상적인 것들도 아니었기에 지문에 정의된 개념이나 주장을 잘 확보해줬다면 수월하게 푸셨을 겁니다.

다만, 13번 문제의 2번 선지는 해당 법률이 적용되는 범위에 관해 조금 헛갈리게 묻고 있었습니다. 아마 5번까지 안 내려가고 2번 선지를 바로 체크하고 넘어가서 틀렸을 분들이 많았을 거 같습니다.

1-3) 과학/기술 : 라플라스 식과 그것을 활용한 잉크젯 프린터

- 인과 관계의 확보와 변수 간 비례 관계의 확보

지문에 제시된 매커니즘이 크게 복잡하지 않았고 직관적으로 이해하여 넘어갈 수 있을 수준이었습니다. 다만 평소 과학 지문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시거나 과학 제재에 대한 경험이 충분히 없었다면 지문에서부터 빠그라지셨을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폐포와 라플라스 법칙을 중심으로 연계되었으나, 이 지문의 주인공은 잉크젯 프린터인 거 같습니다. 그치만 앞선 두 지문보다 연계 체감도는 더 높았을 거 같습니다.

15번은 1문단에 제시된 비례관계를 끌고 올 것을 요구하였으며, 16번도 잉크젯 프린터와 관련된 비례관계를 묻고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16번 문제는 일부러 힘을 많이 빼서 봐준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령, 지문에 관련 비례 관계를 몇 줄 더 추가하거나 선지의 지름을 '반지름'으로 고쳐서 출제하는 등 더 어렵게 낼 여지가 있었으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2) 문학

2-1) 연계

현대소설이 연계된 대신, 고전소설이 비연계로 출제되었으나 낯선 소설이 아닌 유명한 작품이 출제되었습니다. 홍길동전이 그것이었습니다. 현대시 그 나무, 고전시가 만전춘별사와 이정보의 시가가 연계되어 출제되었습니다.

현대소설은 중략 이후부터 끝까지가 EBS의 대목과 일치하기에 연계 체감이 크셨을 거 같습니다. 현대시도 연계 학습의 효과를 크게 보셨을 거 같습니다. 하지만 고전시가는 짧은 길이의 주제 의식도 쉬운 작품이 연계되어 연계 학습을 하지 않았어도 무리 없이 푸셨을 거 같습니다.

2-2) 현대소설

2025학년도 9평 이후 첫 현대소설 연계입니다. 9평과 수능에서도 이렇게 연계될지는 모르겠으나, EBS 대목과 줄거리 위주, 적어도 EBS 대목 정도의 연계 학습은 해두셔야겠습니다.

2-3) 갈래복합

갈래복합에서 수필의 경우 문체가 다소 옛스러워서 독해에 어려움을 겪었을 수도 있을 거 같으며, 다른 복병은 없었을 거 같습니다. 현장에서 내가 모르는 단어들 나오는건 너무나도 당연한 현상이기 때문에 유동적으로 맥락을 잡으며 주제의식을 파악했다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겁니다. 다만, 22번에서 오답률이 꽤 높아 보입니다. 이러한 표현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에선 'A하여 B한다.'의 구조로 선지가 출제되는데, B가 작품에 있는지를 먼저 보며 지워지는 것들은 지운 후 A가 있는지를 살피는 방식으로 소거하며 접근한다면 좀 더 수월하게 푸실 수 있을 겁니다.

2-4) 고전소설

홍길동전이 비연계로 출제되었습니다. 비연계로 매이저 작품을 낸다는 것에서, 지문의 낯섦으로 변별하지 않으려 했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작년 저희 전공 수업 강의 내용과 <보기> 내용이 너무 비슷해서 놀랐습니다. 29번과 30번은 각각 지문에서의 맥락과 사실관계를 선지와 잘 비교해 보았다면 맞출 수 있었을 거 같습니다.

3) 선택과목

- 화법과 작문에서

37, 39번같은 처음보는 듯한 형식의 문제도 사실은 다 같은 것을 묻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쫓지 말고 풀어봅시다! 45번 문제는 기출과 같은 형식으로 등장했으나 조금 까다로웠을 거 같습니다. 선지를 읽을 때 급하게 읽지 말고 천천히 끊어서 읽는 습관을 들이면 좋을 거 같습니다.

- 언어와 매체에서

지문형 문법에서 변이음 및 이형태 관련 개념이 출제되었습니다. 지엽적인 주제라 익숙하지 않았을 수 있지만 지문이나 문제 모두 난이도가 어렵지 않았죠. 계속 이렇게 나온다는 보장은 없기에 지문의 내용을 잘 확보하여서 선지와 매칭시키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또한 36번의 5번 선지를 보고 “‘멍’은 비음화의 결과이기에 동기가 있어 자동적 교체이다~” 라는 사고 과정은 한 번 짚고 넘어갈 만합니다.

37번은 문장 구조 분석을 주제로 출제되었으며, 기본적인 개념을 묻고 있었기에 모르고 계셨다면 전반적인 내용을 다시 학습해보시길 권합니다.

38번은 중세 국어의 의문문에 관해 묻고 있으며, 판정의문문과 설명의문문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물어보고 있습니다. 다만, 현대어 풀이가 함께 제시되어 있기에 '긍부정을 판단하는 의문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될듯합니다.

39번은 합성어와 파생어에 관한 문항입니다. 평가원에 자주 등장하는 주제이기에, 직접 구성 요소 분석과 합성어/파생어에 대한 판단은 능숙하게 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해당 문항에서는 예시 단어의 구조를 1차적으로 나누어주었지만 분석이 제공되지 않더라도 스스로 나눌 줄 알아야 합니다.

2023학년도 수능 언매 35번과 2024학년도 9평 언매 35번을 다시 한번 보시길 권합니다.